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시냇가에 심기운 장성한 나무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열매처럼
나의 잔을 높이 들 때 넘치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주님을 찬양하리라

세상의 부귀와 명예
그 어떤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풍성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주님

내가 무엇이관대, 우리가 무엇이관대
탕자같이 아버지를 떠난 자를 붙잡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주님
풍성한 주님께 감사하리라

농부의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어부의 배를 풍요롭게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부요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리라
풍성한 주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김삼환 원로목사 기도시집 「주님의 옷자락 잡고」 중에서



성도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로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 꿈은 청소년이 되면서 학자의 꿈, 사업가의 꿈, 정치인의 꿈, 연예인의 꿈 등 구체적으로 자리 잡게 되고, 결국 꿈꾸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 꿈의 방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꿈꾸는 대로 됩니다. 야곱도 요셉도 꿈꾸는 대로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꿈의 종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영적인 꿈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귀한 꿈은 선교의 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꿈은 선교의 꿈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정욕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귀한 사명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선교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 받는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고, 국가가 될 때 온 세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선교에 맞출 때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선교는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이 큼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인생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선교에 힘쓸 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깨어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하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이루셨지만, 구원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 전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채워 주십니다.

선교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꿈을 꾸지 마십시오. 권력도 물질도 별 것 아닙니다. 잠깐의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꿈은 깨고 나면 헛되고 헛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나 깨나 선교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캇 펙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악을 복음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자자손손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람입니다. 아시아와 에베소를 중심으로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로마를 목표로 4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거쳐 간 곳은 다 변화되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의 선교의 꿈이 로마를 향하여, 선교의 발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이 만연한 에베소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바울의 목회에서 제일 중심이 에베소이고, 그 다음이 로마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바울의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남은 생애 동안 교회생활 잘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교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꿈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로 마음먹으면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미 그 집에 천사를 파견하십니다. 헛된 꿈을 바라보지 말고 로마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잘됩니다

저는 2003년에 처음 명성교회에 나왔습니다. 7년 후 명성교회에서 성장한 믿음의 아내를 만나 원로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하게 되었고, 젊은신혼가정 모임의 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잘됩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제게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면

서 해외 MBA를 목표로 하며 ‘하나님만 잘 믿으면 MBA 기회를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7년차 은행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본점에서 한 번도 근무하지 못해 동료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던 상황이라 MBA 연수대상자로 선발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활절 예배 때 “세상 어느 것에도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목적을 두십시오.”라는 원로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삶의 목표를 MBA와 세상에서 더 잘되는 것에 두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 몇 주 뒤, 지금까지는 본점 위주로 MBA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였는데 이번에는 지점 근무자들을 우대하도록 은행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MBA 연수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MBA 과정을 마친 후 본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본점에서 유능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주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같은 팀의 전 직원이 주일날 하루 종일 함께 일하며 월요



이창선 · 방희경 집사 | 53교구 76구역

일에 성과물을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본점에서 근무하며 해이해졌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본>이라는 원로목사님의 기도문 가운데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을 보면서 주일성수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린 후 주일에는 회사에 갈 수 없다고 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에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지만 동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자 주일날 출근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집 근처의 지점으로 인사이동을 신청하였습니다.

승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주일날 출근하지 않고 퇴근 후에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에 집 근처의 지점으로 발령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인사이동 때 하나님께서 금융감독원 파견직으로 발령을 내주셔서 주일날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퇴근 후에는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함께 경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무슨 간증을 해야 하나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명성교회로 불러주시고, 5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귀한 두 자녀를 주시고, 성전 가까이 살면서 하루하루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오직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며 어려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사를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만 잘 믿도록 인도해주시는 원로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명성교회가 걸어온 은혜의



40년, 걸어갈 은혜의 40년

부서 소개 구역 ▶ 교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명성교회는 1980년 7월 6일(주일) 창립되었다. 명성교회 최초의 구역은 4개 구역으로 4명의 구역장이 임명을 받아 출발하게 되었다. 교회가 급속히 부흥하여 8월 3일 첫 주부터 20개 구역으로 발전하였고 남, 여 구별 없이 구역장이 세워졌다. 개척 첫째 11월 3일(월)부터 대심방이 시작되었으며, 특별히 11월을 '구역 부흥의 달'로 정하여 첫 번째 금요일인 11월 7일 연합구역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나누었다. 1980년 12월 28일에는 20개 구역에서 28개 구역으로 부흥하여 28명의 구역장이 재임명 및 추가임명을 받았다.

창립 5주년인 1985년에는 6개 교구 306구역으로 부흥하였고, 1987년에는 9개 교구 524구역 3,650세대로 부흥하였다. 창립 9주년인 1989년 7월 6일에는 주일 장년출석 1만여 명에 12개 교구 700구역으로 성장하였다.

창립 10주년인 1990년에는 15개 교구 824구역에서 구역장 820여 명, 권찰 1,670명이 세워졌다. 그해 7월 6일(금)에는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구역장·권찰의 날' 축하행사를 가졌다. 김삼환 목사는 "우리 교회가 창립 10년 만에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작은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해준 수고의 열매입니다. 앞으로도 명성교회의 봉사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앞장서서 열심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창립 15주년인 1995년 8월 27일 주일찬양예배 시간에는 2,000구역 돌파를 기념하는 '2,000구역 부흥감사예배'를 드렸다. 그 당시 2,026구역은 창립 초기의 20구역에 비해 100배 이상의 성장을 이룬 것이며, 1995년 마지막 주일에는 21개 교구 2,106구역 12,250세대로 부흥하였다.

그 후 2000년 6월 30일 '구역장·권찰의 날'에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5,000여 명의 구역장과 권찰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4대 교구에 22개 교구 2,629구역의 구역장과 권찰들은 교구별로 준비한 특순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나누었다. 창립 26주년인 2006년에는 3,000구역을 돌파하여 4대 교구에 25개 교구 3,122구역으로 부흥하였다.

2014년 2월 28일에는 4,000구역 성장을 기념하여 감사예배를 드렸고, 이듬해인 2015년에는 6대 교구에 32개 교구 4,044구역 25,068세대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2017년 1월 1일 주일에는 분당 2곳, 목동, 상계, 일산 등 5개 지역의 기도실을 중심으로 교회 분립 및 파송식을 가졌으며, 교회 분립 이후에도 6대 교구에 29개 교구 3,833구역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현재 지역별로 6대 교구에 30개 교구 3,609구역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은혜의 4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걸어갈 은혜의 40년을 향하여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0 청년대학부 하계수련회

날짜 2020.08.13(목) ~ 15(토)
장소 명성교회 예루살렘성전
강사 김훈규 목사 / 황대석 목사 / 청년대학부 교역자



W.W.G

WALK WITH GOD / WORK WITH GOD / WOW WITH GOD

NEWSONG 1

예복은 욕심으 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예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5:21-24

청년대학부 하계수련회가 'W.W.G(Walk/Work/Wow With GOD)' (창 5:21-24)라는 주제로 8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예루살렘성전에서 열렸다.

첫째 날에는 새벽예배와 기도회 후 박요한 전도사(대학부)가 'Stay With GOD(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오신 곳 : 성막)'이라는 특강 중 1강으로 '성막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강의를 하였다. 이어 2강으로 허승환 전도사(청년부)가 '제사, 하나님께 나아감1'이라는 강의를 하였다.

오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월드글로리아센터 1~5층에서 뉴송캠핑장, 영화관, 포토존, 보드게임, 방탈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학부원들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부흥회에서는 과거 청년대학부를 섬겼던 김훈규 목사(울산광장교회)와 황대석 목사(예썬교회)가 초청강사로 토크쇼를 진행하였으며 '동행',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둘째 날에는 새벽예배와 기도회 후 임용섭 목사(대학부)가 3강으로 '제사, 하나님께 나아감2'라는 강의를 하였다. 이어 4강으로 이정수 전도사(대학부)가 '성소로 보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강의를 하였다.

오후에는 전날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저녁부흥회에서는 백재용 목사(대학부 담당)가 '동행 : 과정에서 결론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김하나 목사와 청년대학부 교역자들이 함께 치악산명성수양관에서 분위기를 연출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토요일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를 드린 후 이용조 전도사(청년부)가 5강으로 '지성소,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온라인 강의를 하였다. Newsong J 예배 시간에는 김병규 목사(청년부 담당)가 '동행 : 어디 계시오니이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수련회를 마쳤다.

소감

박주성 성도 | 대학부 38기

이번 하계수련회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춘 사람에게 동행의 기쁨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동행을 멈춘 경우였던 저는 2020년 대학부 임원단으로 섬기며 연초의 기대와는 달리 예배에 대한 기쁨을 잃은 채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먼저 새벽예배를 통해 '승리의 공식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놀랍게도 첫째 날 김훈규 목사의 말씀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명성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이 물밀듯 떠오르며 동행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나날들에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히 주님만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나 성도 | 청년부 90기

이번 하계수련회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그룹원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수련회에서 찬양과 예배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로웠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 중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바뀐다."라는 말씀과 "광야에도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동행'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제 삶의 동사도 '동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소년학교 여름성경학교가 '믿음 미라클2: 악속탐험대'라는 주제로 8월 15일(토)부터 16일(주일)까지 각 가정과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가정에서 C채널과 유튜브 앰프랜즈 채널(www.youtube.com/NFRIENDS)을 통해 온라인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어 어린이들이 실시간 댓글과 인증샷으로 함께하였다. 둘째 날에는 부서별 예배실에서 예배 및 후속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여름성경학교에 앞서 공과교재, 주사위게임, 앰프랜즈 모자, 팝콘 등이 담긴 키트를 각 가정으로 배송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유·소년학교 학생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로 든든히 성장해 나가기로 소망한다.

소감

정현영 | 유년학교 2-3믿음부

코로나19로 여름성경학교를 예전처럼 교회에서 하지 못하게 되자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집에서 누나, 동생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또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모세에 관한 말씀을 듣고 빙고게임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저는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에 나오는 '악속탐험대' 특별영상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여러 번 집에서 다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일은 정말 신기했어요. 특히 시골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우리 또래의 많은 친구들이 C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신태은 | 유년학교 2-3믿음부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토요일에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교회 부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악속탐험대'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편하고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교회에 가고 싶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모두 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찬양하는 것이 참 좋아요!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도 마음껏 찬양하며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재미있었고, 빙고게임도 하고 선물도 많이 받아서 기뻐요. 저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친구들과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다고 잠자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3학년 때는 다 함께 모여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물놀이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태미 | 소년학교 5-3B부

작년에 처음으로 치악산명성수양관으로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왔는데 너무나 재미있고 은혜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도 기대했는데 코로나19로 수양관에도 못 가고, 친구들과 함께할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집에서 TV를 통해 진행되는 여름성경학교가 낯설었지만 가족과 함께 찬양과 율동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제 이름으로 배달된 택배 속에 간식과 선물이 담겨 있어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악속탐험대'에서 배운 것처럼 저와 소년학교 친구들 모두 모세할아버지와 같이 담대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황명연 | 소년학교 5-3B부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단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치악산명성수양관에 갈 수 없었던 것과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점은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과 둘째 날 교회에서 전도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놀이 게임으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여름성경학교까지 피해를 주게 될 줄 몰랐는데 막상 수양관에 가지 못하게 되니 빨리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수양관에 가서 전도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물놀이도 하고, 친구들과 잠도 같이 자고, 말씀에 은혜도 받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6, 7면의 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뒤늦게 게재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출 산

기 도 부 이지나 사모(김다림 전임전도사) 득녀 25094 박정연(유지성) 집사 득남 55040 김효영(류창우) 집사 득녀
13026 김예림(홍현용) 성도 득남

소 천

원주영권 김용현 사모(김명찬 협동목사) 부친 25102 이경리 집사(권명연 성도) 부친 55016 김형순 집사 모친
15061故 이창주 성도 41066 엄석자 권사 부군 故 전병세 집사 61012 김애숙(임시택) 집사 모친
23016 김희연(천강우) 집사 모친

축 하

31102 임명순 권사(김정평 집사) 32058 장은혜 성도 - 유선자(장흥기) 집사 장녀 43119 박성연 성도 - 이경애(박형수) 집사 장녀
대통령기 제40회 국민독서경진대회 2020-2021 여자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11월 5일(목)-20일(금) 서초구립 한우리정보
강동구 예선 일반부 최우수상 2라운드 1순위로 하나은행 지명 문화센터 갤러리 활(活) '박성연 개인전'

개 업

11082 권오천 집사 -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51, 1층 31008 윤성민 집사 - 김종화 권사(윤현원 집사) 장남 41145 이영숙(박민수)성도 - 강동구 고덕로 210
BUBBLES hair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25 미사테스타타워 삼익그린2차 상가 314호 플러스(가발점)
02-6082-5002 지하 1층 FB 132호 이레화방 02-427-1126 010-2621-8989

전 역

14096 김대찬 - 한상희(김재관) 집사 장남 33081 김태훈 - 유은수(김평호) 집사 장남
육군 10월 20일 육군 11월 9일

결 혼

신랑 김무성 ♥ 신부 강미애 신랑 이인수 ♥ 신부 객재인 신랑 문재웅 ♥ 신부 최성애
32064 김재명 집사·김춘자 권사 차남 14070 이평원 집사·장경희 권사 장남 15008 최재수 집사·황계순 집사 장녀
34026 11월 14일(토) 낮 12시 11월 14일(토) 낮 12시 11월 14일(토) 오후 2시
살롱아트홀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2층 샴페인홀 아르테스웨딩 2층 아르테스홀
신랑 임지환 ♥ 신부 박유신 신랑 한성수 ♥ 신부 김지민 신랑 김경민 ♥ 신부 양동원
11099 임동부 집사·권윤자 집사 장남 14137 김문석 집사·강향연 집사 장녀 44039 김중석 집사·함말순 집사 장남
52005 박성수 집사·이혜정 집사 장녀 11월 14일(토) 오후 2시 11월 14일(토) 오후 4시
11월 14일(토) 오후 1시 더 리버사이드 호텔 6층 몽블랑홀
예루살렘성전 호산나홀 H스퀘어 6층 헤리티지홀

기도
프로
그램

다니엘 기도

모든 성도들께서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하루 세 번씩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시간 하루 세 번(새벽 6시 30분, 낮 12시, 밤 10시)

성전 마당 밝기 기도

예배당에 나오기 힘든 이때 '성전 마당 밝기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마당을 밝거나 교회 주변에서 기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C채널

C채널방송 채용공고

[설교편집 프리랜서 채용 안내]

- 근무부서: 편성팀
- 담당업무: 설교편집
- 우대사항: 에디우스 및 편집 프로그램 사용가능자

- 제출서류: C채널방송 입사지원서
- 제출기한: 11월 10일(화)
- 접수방법: 이메일(ccc@cchannel.com)

C채널

2020 C채널 후원방송

명물수놓는예배
명물수놓는선교

11월 9일(월) 오전 9시 첫방송!

11월 9일(월)부터 12월 6일(주일)까지
C채널 후원방송에 계속되오니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ETV 11월 9일(월) 9시 30분 15분 45분
주요방송 11월 9일(월) 9시 30분 15분 45분 11월 10일(화) 9시 30분 15분 45분
11월 11일(수) 9시 30분 15분 45분 11월 12일(목) 9시 30분 15분 45분 11월 13일(금) 9시 30분 15분 45분

EYE지킴이안경

명성교회 옆 명일동 328-3
02) 442-3597
010) 6610-3597

- 완 전 폐 업 -

볼테	5,000원
학생안경(코팅Lens 포함)	25,000원
돋보기(코팅Lens 포함)	10,000원
고굴절 Lens	15,000원
블루 라이터 Lens	20,000원
다초점 고굴절 Lens	100,000원
다초점 변색 Lens	150,000원

11월 29일 까지 만 영업